

2010년6월22일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미쯔비시중공업 주식회사

히타치와 미쯔비시중공업이 해외 철도시스템사업의 협업을 기본합의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집행역사장: 나카니시 히로아키, 이하 히타치)와 미쯔비시중공업 주식회사(집행역사장: 오오미야 히데아키, 이하 미쯔비시중공업)은 이번에 해외를 대상으로 한 도시내의 철도시스템 사업에 관해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사업확대를 목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기로 기본 합의하였습니다. 양사는 향후, 해외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내 철도시스템 안건에 대해 마케팅부터 건설·공사, 유지·보수에 관련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현재, 전력시스템과 철도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사회인프라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일정 수준의 사회인프라가 정비된 선진국·지역에서도 고도의 정보통신시스템에 힘입어 사회인프라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모바일리티의 한 가지인 철도시스템은 환경 부하가 적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기관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럽, 아시아, 중동, 북미, 중남미 등,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건설과 연장, 차량·시스템의 개량에 의한 고속화 등의 움직임이 활발화되고 있고, 해외의 철도시스템 시장은 확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와 같은 시장동향을 토대로 한 것으로, 히타치와 미쯔비시중공업은 해외 도시내 철도시스템 안건에 있어서 적절하게, 마케팅부터 개발, 설계, 제조, 조달, 엔지니어링, 건설·공사,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제품 라인업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하철 등을 포함한 재래형 통근차량, 전자동무인운전차량시스템(APM*1)·경량궤도교통(LRT*2)등의 신교통시스템, 모노레일 등, 도시교통에 관련된 다양한 철도시스템의 니즈에 부응해나가겠습니다.

히타치와 미쯔비시중공업은 각각, 철도시스템의 전반 및 차량, 신호, 통신, 전력, 궤도라는 각 구성 요소에 관해 선진 제품군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타치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력,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과 미쯔비시중공업이 지닌 기술 개발력,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실적,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노하우, 폭넓은 파트너십은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토대로, 히타치와 미쯔비시중공업은 향후 양사의 실적,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철도시스템 사업의 적극적인 해외 전개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 APM : Automated People Mover(전자동무인운전차량시스템)

*2 LRT : Light Rail Transit(경량궤도교통)

이 상.